

수소에너지 활용 사례



수소 자동차

수소 탱크에 저장된 수소와 외부에서 공급되는 산소를 연료 전지에서 반응시켜 모터를 움직이는 전기를 생산한다. 엔진의 연소가 이루어지지 않아 배기가스가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하는 것은 오직 물 뿐이다.



가정용 연료 전지

전기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온수와 난방에 사용하는 방식이다. 일본은 2009년부터 가정용 연료전지를 보급하기 시작하여 2019년 기준 33만 6천대가 설치되었다.

수소 드론

수소를 활용해 비행시간과 거리를 늘려 기존 드론의 문제점을 해결했다. 2021년 제주 해안에서 10km 떨어진 마라도까지 시속 50km로 날아가 의료용품을 전달한 바 있다. 기존의 전기 충전식 드론은 5km 남짓 날지만 수소 드론은 70km를 날 수 있다.



그 밖

또한 수소도시 울산을 중심으로 수소경제를 구축, 수소 활성화 로드맵 등 수소에너지 상용화를 위한 많은 시도를 하고 있다.



인간 문명을 재구성할 강력하고 새로운 에너지 채개거 부상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수소이다.

제레미 리프킨 <수소 혁명>